



스캔하시면 '북민실'
카톡친구추가
가능합니다.

Jangdaehyun School
MAGAZINE

특집을
즐꾸라!
No.5

장대현학교 소식지 2021 / 2022



소식지 특집 No.1 임창호이사장 고신대학교 교수직 은퇴기념 인터뷰 제2의 인생 시작점에서

소식지 특집 No.2 지성호, 태영호의원 인터뷰 탈북 국회의원을 만나다

미래통일한국의 리더, 탈북지식청년들을 위한 제1회 P&H 북한인권세미나

통일을
꿈꾸라!



표지사진 : 장대현학교 학생들

북민실과 SNS친구맺기



카카오프러스친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북민실을 검색하여 친구추가 해주시면
*북민실과 장대현의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임창호
 편집인 마주은
 발행처 (재)북한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
 TEL 051)261-0199
 FAX 051)265-3679
 E-mail nkhrd@nkhrd.org
 주소 부산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 76번길 71
 (신호동) 경삼빌딩
 홈페이지 www.nkhrd.org
 제작 현대출판인쇄사 051)464-5667

비매품

Contents

04 소식지 특집 No.1

제2의 인생 시작점에서
임창호이사장 고신대학교 교수직 은퇴기념 인터뷰

12 NEWS

장대현학교 인가대안학교 진입을 위한 교육환경평가 통과

13 장대현학교

2020/2021 주요행사

“부산시립미술관에 다녀왔다~!!”

영화로 보는 전쟁사

부산역사산책

Fall in Love with 장대현 박세려 (2021년 졸업)

‘교육, 선교, 가정’ 그리고 장대현학교

왜? 지금? 여기인가? 자원봉사자 양재령

장대현의 보이지 않는 손 정정남 / 전영이 / 도경미

36 소식지특집 No.2

탈북 국회의원을 만나다

기타 재단부속기관 소식



45 장대현지역아동센터 이모저모

2020 / 2021 주요행사

Happy New-sports!

아동이 행복한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가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몸도 마음도 튼튼! 체육 프로그램 황소은 선생님

자신감 충전! 오카리나 프로그램 전유나 선생님

창의력 쑥쑥! 미술 프로그램 김지혜 선생님

장대현지역아동센터 에피소드중학생편



56 북민실재단 이모저모

미래통일한국의 리더, 탈북지식청년들을 위한
제1회 P&H 북한인권세미나

61 2020 후원보고

63 북민실의 투명한 운영

66 후원신청서

67 오시는 길 안내





| 소식지 특집 No.1 |

제2의 인생 시작점에서

임창호이사장 고신대학교 교수직 은퇴기념 인터뷰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식지 창간 이래로 첫 인터뷰이실 텐데 복민실과 장대현학교를 설립하신 입장으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2021년 2월, 길었던 교직생활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정년퇴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말씀 전합니다. 그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 어린 시절부터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부터가 어린 시절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학생 때 생물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교사를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그때는 또 국어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한문을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정말 박식하시고 막힘없이 한시를 해석하시는 모습에 아, 나도 국어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죠. 중학생 때는 생물 선생님께, 고등학생 때 국어 선생님께 영향을 받아서 선생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고전읽기 대회가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과 합숙하면서 세계고전전집을 읽고 퀴즈대회, 웅변을 하고 전국대회까지 나가면서 문과에 소질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교사로서의 꿈도 확고해졌습니다. 그 후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에 진학하고 교사가 되어 결국 그 꿈이 이루어졌네요.

1983년에 고신대학교 학부를 졸업하시고 1993년 모교인 고신대학교에 다시 돌아와 학부생들을 지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학부생 때가 종종 생각나셨을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이사장님의 학부시절과 지금의 학교생활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야말로 천지개벽했죠. 우리 때는 인터넷, 컴퓨터,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도서관에서 책을 빼다가 그 책에 쌓여있는 먼지를 마서가면서 책을 읽고 모든 선행연구는 논문집을 직접 찾아 책에 밑줄을 치고 단어장을 만들어가면서 200자 원고지에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종이 책을 읽지 않고 e-book을 읽고 인터넷 들어가면 전 세계가 다 나오니 상상도 못한 세계가 찾아온 거죠. 특히나 그 시절에는 선생님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꿈같은 일이고 특권이었는데, 지금은 선생님께 물어보기도 전에 인터넷으로 궁금증을 다 해소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기껏해야 취업 관련해서 찾아오고 말죠.

예전에는 대학도 별로 없었어요. 부산에도 6개 대학뿐이었는데 그래서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끼리 만날 수 있는 모임이 있었죠. 집집마다 대학생 가정교사를 고용하는 것이 유행이라 가정교사로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어요. 무엇보다 대학에 축제라든지 문학의 밤이라든지 낭만이 가득했고 책을 읽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뭔가 꿈이 있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 나름대로 대학생이라는 자부심이 가득

했었죠. 요즘에는 대학을 다니면 취업준비하고 자격증 판다고 정신도 없고 무한경쟁시대에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대학생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보여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차이라면 차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 시절에는 정말 사람과 사람 간의 정겨운 만남, 꿈과 이야기가 넘치던 시대였네요.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끼리 모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사장님도 그 모임에 참가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당시 제가 총학생회 부회장이라 학교대표로 모임에 참석했죠. 대학생 때 국문학과 교수님께서 공부만 하지 말고 많은 활동을 하라고 하신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대학 1,2학년 때는 학교 신문사에서 학부생 기자로 활동하고 과대표도 하고 3학년 때는 사진 동아리를 만들어서 회장으로 활동도 하고 4학년 때는 코람데오 합창단이라고 해서 기독교교육과, 신학과, 간호학과, 의예과 중심으로 합창단을 만들어서 지휘도 하고 그랬죠.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도 같이 병행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젊었으니까 잠을 적게 자고 그랬죠. (웃음)

이사장님께서 리더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지금의 위치가 더욱 빛을 바랄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교직원생활 가운데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바로 장대현학교를 설립했을 때입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고신대학교에 부속학교가 없기 때문에 부속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자연스럽게 학교설립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특별히 탈북민들의 자녀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시작으로 장대현학교와 장대현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더 체득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 교사들이 한 팀이 되어 통일을 향한 교육의 현장을 만들고 통일을 실현해가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제자는 누구 하나 꼭 집어서 말하면 다른 사람 서운할 수도 있을 건데. (웃음) 제가 93년도에 고신대학교 교수가 되었는데 저의 첫 제자인 93학번 신입생들 가운데 이번에 고신대학교 교수가 된 제자가 있어요. 저의 애제자였는데 제가 은퇴하고 그 친구는 이제 교수가 됩니다. 저의 전공을 이어 교육철학·교육사 교수로 왔기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정말 큰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제자들과 다양하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과 같아서 학

생들이 잘 되는 그것만으로도 제게 큰 보람이고 기쁨이 됩니다. 더하여 기독교교육과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교육의 현장에 가서 활동하는 제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과 연락을 하면서 대화가 계속 이어짐이 저에게는 즐거움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일이 항상 순탄치 않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교수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잘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중간에 애기치 못한 일로 잘못 되었을 때, 교육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길로 빠져나갈 때 참 마음이 어렵죠. 그리고 기독교교육을 전공하면 옛날에는 국가가 국민윤리교사자격증을, 지금은 종교교사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국립학교들이 다양한 과목 가운데 종교과목을 채택하지 않아서 기독교교육을 전공한 학생들이 갈 곳이 없는 현실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약 5000만 명 가운데 55%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만 봐도 보편타당하게 종교를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큼니다. 건강한 종교를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으니 이단, 사이버를 구분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입니다. 만약 제대로 된 종교를 가르쳤다면 국민들이 좀 더 교양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소식지의 독자들 가운데에는 선생님이 꿈인 학생독자분들이 계시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은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셨는지, 그리고 교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독일의 한 교육학자는 ‘교사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슬라이어마허는 불과 13살 때 암흑같은 세계에서 가르침을 통해 누군가를 일깨워주는 밝은 빛을 보게 하는 교사의 길을 가야겠다는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헤르만 놀이라는 교육학자는 ‘교사와 학생은 교육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이 없으면 교육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한 커뮤니케이션학자는 토론토대학교에서 ‘메신저가 곧 메시지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는 어떤 교사냐에 따라 학생들이 가르침의 내용을 스편지처럼 흡수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말로 장대현학교 정신이자 저의 교육철학인 ‘교사가 곧 교육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보다 나아지고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더 알게 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과정 그 자체인데 이 과정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야 하는 것이지요.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 교사는 소명감과 사명감이 동반되는 천부적인 재능과 자질로서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교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단순히 학생들을 돈벌이로, 학교를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학생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들도 나에게 도움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죠. 설령 선생님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배울 것이 분명 있기 때문에 뭐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무한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부하든 가난하든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배움의 마음과 정신만 있다면 얼마든지 인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가득 채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2014년에 장대현학교를 설립하시면서 교육의 장이 더 넓어졌습니다. 장대현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으로, 고신대학교에서는 기독교교육과 교수님으로 병행하여 재직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크게 어려움이 있다기보다 개인적인 삶에 여유가 없죠. 고신대학교 교수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탈북자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왔기에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장대현학교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금쪽같이 시간을 나눠서 시간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갔어요. 철저한 시간관리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분야에 10년 이상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약 30년의 세월을 가르침에 매진해 오셨는데 '교육'을 한 마디로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가장 강조하시던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모르는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고 개인적으로 발전하려고 성장하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인간의 발달과 성장, 그리고 존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지요. 동일선상에서 교육의 핵심적인 과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무지에 대해 어떻게 깨닫게 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를 깨달은 학생이 어떻게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을지를 돕는 것입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자기 자신의 자신됨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환

경,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것이 교육의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인 것이죠. 발달은 개별적인 것이고 성장은 환경적인 것이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지 억지로 시키면 절대로 발전이 안돼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배움에 있어 자발적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꼭 가르쳐 왔습니다.



은퇴기념이기는 하지만, 복민실 재단 이사장님으로서의 행보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재단법인 '북한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을 통해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들 가운데 가장 큰 성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재단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북한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 우리 재단 이름이 긴데 그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북한인권', 북한에서 온 분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인류가 만든 시스템 가운데 가장 건강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시스템 아래에서 민주적인 생각을 하

고 민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나아가서 탈북자로 하여금 민주적인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죠. 마지막으로 '운동', 단지 구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찬성하는 누구와도 함께 단결하여 행동을 보이는 것이 우리 재단의 역할인 것입니다.

특별히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인간다운 삶, 민주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실천적 교육을 통해서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육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몽교육,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운동이 2006년부터 상당히 일찍 시작되어 교회 등 다양한 단체로 이 운동이 퍼져나가 어느덧 16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그 시간동안 부산에서 북한인권이나 탈북민의 삶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죠. 후원자가 많아진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후원을 통해 아동센터가 개소하고 학교가 설립하여 졸업자를 배출해 사회에 보내고 외국에 유학도 보내는 등 열매들이 맺혀나가고 있어요. 201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저에게 민간통일운동 유공자 국민 포장을 주었어요. 그만큼 국가도 부산에서 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중심적인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인정을 해준 거죠. 현재 학교가 인가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를 보면 아시다시피 교육청도 우리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지금까지의 발자취는 북민실 재단이 주변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신뢰를 얻고 있다는 하나의 표징이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구나, 제대로 된 길이구나를 느끼게 되고 그로인해 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은 힘들어도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북민실 직원들과 장대현학교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북민실과 장대현학교는 통일공동체이자 신앙공동체이고 생활공동체이자 비전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이고 마침내 통일까지 가야되는 거고 그 종착지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북민실을 통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직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신앙으로 가는 것이고요. 장대현학교는 기숙생활을 통해 아이들, 더 나아가 탈북민들에게 올바른 삶을 보여주는 생활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가보지 못한 통일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소망을 품고 가는 비전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끝없이 그 꿈을 공유하고 좇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통일은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한 팀이 되고 가

족이 되어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먼저 팀워크를 가지고 단순히 회사라는 하나의 이익공동체가 아니라 생활공동체이면서 공익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세를 낮추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위해 너 일 내 일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함께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통일한국에 쓰임받는 인재들을 키우는 우리 북민실의 직원들과 장대현학교 교사들은 앞서 말한 태도와 더불어서 함께 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에 학생들도 그런 통일의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과 함께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기를, 그리고 더 큰 인재들로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대학에서 퇴임을 하시는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퇴임 또는 은퇴라는 말은 영어로 retire라고 하는데 이말은 tire를 바꾼다고도 말합니다. 새 tire로 갈아끼고 힘을 내서 더 집중해서 북민실의 일들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북민실 재단과 산하기관을 돌보는 것을 중점적으로 계획들이 흘러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은퇴라는 것에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은퇴란 단지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말입니다. 왜냐면 저는 그 자리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네요. (웃음) 많은 시간, 우리 재단 직원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임창호 이사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퇴임은 제 2의 인생의 시작점이라고들 합니다.

앞으로 걸어나가실 길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인터뷰, 편집 마주는

NEWS

장대현학교 인가 대안학교 진입을 위한 교육환경평가 통과

교육환경평가가 6월 1일 성공적으로 통과
빠르면 내년 8월 정식 인가학교 될 가능성도 있어



장대현학교가 현재 인가를 위한 교육청 심사평가 과정 중에 있다. 장대현학교는 2014년부터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으로 탈북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교이다.

장대현학교는 지난 2021년 1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일환으로 대안학교(각종학교) 인가를 위해 교육환경평가 승인 신청을 하였다. 대안학교 설립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교육환경평가가 6월 1일 성공적으로 통과되어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대안학교 설립 승인을 얻었다. 대안학교 인가를 위한 과정 가운데 가장 큰 관문인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한 것은 장대현학교가 인가학교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가를 위한 다음 과제는 행정평가이다. 행정평가는 건물의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와 교육경영 및 학사에 관한 평가로 이를 통과하게 될 경우 빠르면 내년 8월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인

가가 날 것으로 보여진다.

장대현학교 인가 시, 통일부 관할 지원학교가 되며 장대현학교 자체 중·고등학교 졸업장 수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곧바로 대학입시지원이 가능해 지는 등 위탁교육처로서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또한 탈북학교로서는 네 번째 인가 대안학교가 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최초의 인가된 탈북대안학교가 된다. 참고로 수도권 인가대안학교는 여명학교(서울), 하늘꿈학교(경기성남), 드림학교(충남천안) 등이 있다.

현재 전국의 대안학교(각종학교)는 50개 교에 이른다. (2021년 3월 기준.)



장대현학교

○ 장대현학교는 탈북 학생들에게 눈높이 맞춤 교육을 제공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섬김이

교장 임창호(종교와 문화) 교감 정명희(가정)

교사 이은미(국어, 연구부장) 황은지(과학, 학적부장) 유치관(수학)
이종혁(영어) 노경아(사회)

원어민교사 레베카 판크라츠(Rebecca Pankratz) 루갈로(Lou Gallo)

리사갈로(Lisa Gallo) 박소영(So Young Park) 그레이스 정(Grace Jung)

사감 전영이(기숙사) 조리사 도경미(식당) 관리원 정정남(학교관리)

시간제교사 40명(자원봉사자)

운영위원

강은주교수(총신대) 김상윤DB센터장(지방공기업평가원)

김재봉교수(해양대) 김현숙교수(연세대)

박상진교수(장신대) 송남순교수(University of Toronto, Canada)

이정기교수(백석대) 유은희교수(총신대)

임창호교수(고신대) 현은자교수(성균관대)

최은정교수(고신대) 황희성교수(Chicago Theological Seminary, USA)

○ 현재 재학생 18명 (2021년 12월 현재)

2020/2021 주요행사

2020



12월 영어캠프



12월 TGIT



5월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부산지역대회



6월 지성호국회의원 방문 간담회

2021



2월 제6회 졸업식



3월 개학 및 수업시작



7월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특강



7월 LOVE장대현캠프



3월 학생회 선거, 임명(회장 김은유)



4월 을숙도생태공원 봄소풍



10월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특강



10월 VOOKS CEO 마샬 백스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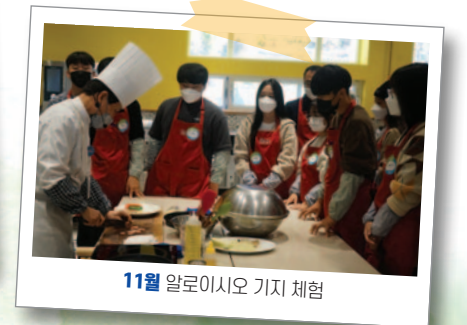
4월 경주 역사문화체험



5월 스승의 날 행사



11월 태영호 국회의원 방문 간담회



11월 알로이시오 기지 체험

2020.10.30. (금) / 날씨 맑음

특별활동

“부산시립미술관에 다녀왔다~!!”



오늘은 부산시립미술관에 가는 날이었다. 오랜만에 버스에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에 있는 시립미술관으로 출발하였는데 가는 도중 좋은 날씨에 빛나고 있는 바다를 보고 도착하기 전부터 기쁜 마음과 좋은 기분을 가질 수 있었다. 미술관에 도착한 후 체온 측정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미술관에 왔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코로나사태 이후 처음으로 온 것이라 너무나 기대가 되었다.

이번 전시주제는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혼자였다.”였는데 3개로 나뉘어져 있는 전시실마다 적혀있는 시를 읽으면서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품을 해석해보았다. 내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비교해가며 관람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내가 꽤 재미있게 보았던 작품은 ‘부시2001’과 ‘괘’ 등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을 색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관련 전시실을 다 둘러본 뒤 지하 1층에 있는 교육실로 가서 체험활동을 하였다. 자신의 짝꿍의 얼굴을 그려주는 체험이었는데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에 자유롭게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다.

체험활동을 마치고 더 브릿지라는 카페에 가게 되었다. 여러 골동품들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여러 빈티지 스타일의 물품들을 보며 ‘왜 난 저 때 살지도 않았는데 향수가 느껴지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시품 중에서는 100년 정도 되었지만 아직도 소리가 나는 축음기, 옛날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수출되었던 장난감들, 크리스마스 썰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타자기, 신기한 저금통, 라디오 등이 있었다. 이 물건들의 역사를 들으며 그냥 가지고 놀기만 했던 장난감에게 이런 사연과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는데 단순히 이것들이 가지고 놀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들이 아니라, 경계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던 꽤 대단한 물건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늘 부산시립미술관과 더 브릿지 카페를 다녀오면서 이런 체험이 오랜만이라 정말 감사했고 이런 체험활동을 통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그림을 볼 때 그 그림의 설명만을 보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다음에도 가게 된다면 오늘과 같은 생각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

상수리나무반 이원석

특별활동 : 영화로 보는 전쟁사



원들러 리스트

1939년,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 독일인 사업가이자 냉정한 기회주의자인 오스카 원들러는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 인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는다. 인건비 없이 수백명의 유대인을 고용한 오스카 원들러는 우연히 유대인 회계사인 스텐과 가까워지고, 나치에 의해 참혹하게 학살되는 유대인들의 참혹한 실상을 마주하게 된다. 서서히 그의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침내 강제 노동 수용소로 부터 유대인들을 구하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구해낼 유대인 명단이 적힌 원들러 리스트를 만드는데...

포도나무반 박보연

예전부터 보고 싶어서 기대했었던 작품이다. 생각보다 보기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재미있게 봤다. 사실 원들러의 첫 목적은 임금이 쓴 유대인들을 공장직원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많은 자산과 명예도 있었고 여자도 좋아했다. 처음부분만 보면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도 몰랐었던 인류애가 있었다.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원들러의 처음 목적이 무엇이었던지 그는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고 자신의 재산을 다 사용해서라도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전에는 부를 위해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부를 포기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진짜 부는 무엇일까 생각해볼 수 있다.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돈이 결코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옆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는 것이 더 큰 부가 아닐까 생각한다. 인생은 원래 외롭지만 내 옆에 교감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더 외로울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반려자를 만나기도 하고 동물을 키우고 식물을 키우기도 한다. 돈에는 생명이 없다. 돈으로 나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이다. 하지만 사람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원들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생명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원들러가 유대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것들을 생각하면 현재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게 아닐까 죄책감이 들 때도 있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아직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작은 것에도 불평하는 사람이니 그 사람들에게 조금 미안할 때도 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

특별활동 : 영화로 보는 전쟁사



킬링필드

이웃나라 베트남에서 벌어진 전쟁이 중립국이었던 캄보디아에까지 번져 캄보디아는 전쟁에 휩쓸리게 되었다. 1973년 8월 7일, 캄보디아가 공산주의 크메르루즈 정권에 의해 함락되기 직전 캄보디아 주재 미국의 뉴욕 타임스지 특파원인 시드니헨버그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도착한다. 1972년 캄보디아 사태에서 미국 공군이 니크루움을 잘못 폭격하여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한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이 알려질까 봐 보도진을 따돌리려 하고 시드니는 뉴욕 타임스지 현지 기자인 디스프란과 함께 참혹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는다. 그러나 상황이 캄보디아 정부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위기를 느낀 시드니와 프란 일행은 미국 대사관의 도움을 얻어 가족을 탈출시키고 자신들은 남아서 마지막까지 취재를 한다. 결국 수도 프놈펜이 크메르루즈군에게 함락되고 궁지에 몰린 시드니와 프란 일행은 프랑스 대사관을 찾

아가 도움을 청하나 프란이 캄보디아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만다. 대사관 밖으로 쫓겨난 프란은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크메르루즈군에게 붙잡혀 강제 노동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포도나무반 조동진

킬링필드라는 영화는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영화였다.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던 내가 이 영화의 소재인 쿠메르 루즈매의 대학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리 만무하다. 1975년부터 3년간 당시 인구 800만명 중 약 170만명이 학살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알 수 있다. 영화 속에서 프란이 쿠메르루즈군에게 붙잡혀 포로수용소에서 처절한 생활을 하다가 탈출하는 장면에서 학살된 사람의 유골로 끝이 보이지 않는 킬링필드 장면이 나온다. 우리나라 또한 6.25라는 한국전쟁을 통해 동족상잔의 이픔을 겪었으나 이렇게까지 참혹하진 않았을 것이다. 영화 속에서 쿠메르 루즈군들은 너무도 쉽게 그리고 잔인하게 같은 종족을 학살한다. 손바닥에 고생한 흔적이 없는 사람을 사살하는 등 지식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과 기술자 계층을 기회주의라는 명목하에 학살하는데 많은 사람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무참히 학살되는 것을 보고 인권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12세부터 16세까지 어린 공산주의 행동대원들이 사람들을 죽인다는 행위 자체를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잔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지도부에 충성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올바른 사상을 확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끔찍한 일이 안 일어나길 원하고 또 영원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우리의 삶과 공존하고 있는 역사



여러분은 역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역사는 지루한 암기과목으로 와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단순히 암기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고 각자의 삶을 성찰하도록 도와주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역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이론수업뿐만 아니라 직접 역사를 보고 느끼는 체험수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보고 그 안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식견 또한 넓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코로나19의 여파로 늦게나마 장대현학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심 '부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역사지를 다녀왔습니다. 장대현학교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을 역사산책장소로 선정하는데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과 함께 역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 우리도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부산포개항가도와 초량아바구길을 산책하다

학생들이 역사를 산책한 곳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잘 알려진 '부산포 개항가도'와 '초량아바구길'입니다.

부산포는 염포, 제포와 함께 조선시대 삼포 중 하나로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입니다. 당대 조선은 무질서하게 입국하는 왜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1407년, 태종 7년에 부산포를 개항하게 됩니다. 그 후 성종 즉위년인 1469년, 부산포는 중상포로 명칭을 바꾸고 왜구를 막는 중요한 국토 변방의 군사요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부산포 개항가도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이유는 1919년 3·1절 만세운동을 부산 최초로 주도했던 부산진교회와 부산일산여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일제강점기시대, 항일독립운동과 교회의 연관성을 중점으로 탐구하였습니다. 초량아바구길은 6·25전쟁의 잔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길입니다. 1950~60년대의 피난민들의 생활터로서의 모습과 1970~80년대 산업 부흥기였던 부산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한국전쟁 전후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역사산책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각 조를 이루어 활동지를 채워나가고 주어진 미션들을 수행했습니다. 산책코스가 꽤 긴거리라 다리가 많이 아팠을 텐데 끝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었고 각 조별을 이끈 선배님들의 따뜻한 지도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단체 사진에 찍혀있어야 할 아이들의 예쁜 미소는 비록 마스크에 가려졌지만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없이 즐거운 산책시간이 되어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겨지리라 생각합니다.



부산역사산책을 다녀온 뒤



활동을 마치고 행복한 추억을 기억하기 위해 역사 탐방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보고서를 기반으로 역사 체험 발표를 하였습니다. 보고서와 발표를 평가하면서 역사가 우리의 삶 그 자체임을 깨달은 학생들이 이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나갔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한 자료들은 아이들의 삶에 소중한 사료적 가치로 남겨져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 땅에 오셔서 언어와 문화가 다름에도 교회를 만드시고 학교를 세워주신 것에 감사했고 이 분들의 노력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장기려박사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셨는데 나라면 그 정도까지 못했을 것 같다. 봉사정신이 정말 훌륭하시고 박사님의 삶을 배우고 닮아가겠다고 느꼈다. 많은 사람들의 고생으로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고등부 최유정



우리가 누리고 있는 멋진 삶들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절대 그 영웅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등부 리우승빈





역사학자 E.H.Carr은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괄호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바로 대화입니다.

역사란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자 과거를 통해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고민하도록 조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산역사산책을 통해 장대현학교 학생들이 과거의 ‘나’와 오늘날의 ‘나’를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는 도약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경아 역사선생님)





*Fall in
Love with*



장대현

박세려(2021년 졸업)
부산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재학

안녕하세요. 저는 장대현학교 제6회 졸업생 박세려입니다.

2015년, 장대현학교에 가장 막내로 입학했을 당시에는 평생 중, 고등학생으로만 지낼 것 같았기에 6년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헤어짐의 시작이라더니 엇그제 같던 입학식과 장대현에서의 즐거웠던 시간들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버렸고, 어느덧 만연이가 되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졸업식의 주인공이 된다니 웬지 어색하기도 하고 아직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더 함께 하고 싶은데 벌써 졸업을 하는 것이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장대현학교에서 보냈던 지난 6년의 시간 중, 기숙사에서 함께 했던 시간이 많이 생각납니다. 북한, 남한,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며 한 공간에서 긴 시간을 마주해야했을 땐 각자 살던 방식과 문화, 환경이 모두 달라 크고


작은 어려움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마다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게 되면서 더욱 끈끈한 관계로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는 가족같이 편하고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장대현 학교는 저에게 학교라는 의미를 넘어 제2의 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함께 학교버스에서 신나게 불렀던 노래들, 친구들과 맛있게 나눠먹던 도넛, 매년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던 소풍... 소소한 것들이지만 장대현과 함께 했기에 제 마음에는 소중한 즐거웠던 추억들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추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제 입꼬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저희 학교는 연애 금지지만 어쩌면 저는 장대현과 사랑에 빠졌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 학교에서 지내는 동안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의 진정한 스승이 되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담고 있던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 믿음으로 함께 서 주신 선생님, 선생님들께서는 인내와 사랑으로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바라봐주셨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날까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자 하신 선생님, 그리고 가장 힘들다는 고3 시절에 저보다 저를 더 챙겨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신경써주신 선생님들의 사랑은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덕분에 더욱 건강한 청소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선생님의 사랑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어린 후배들의 모습을 처

음 봤을 때는 과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의젓한 선배들이 되어, 적극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맡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후배 여러분은 저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었고, 그로 인해 저는 더욱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나이가 같아야만 친구가 될 수 있는 줄 알았지만 후배 여러분과 나이를 뛰어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던 것 같아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든든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던 만큼 많이 그립겠지만 또 장대현에서 새로 자라날 새싹들을 기대하며 화분을 비워주어야겠지요. 후배 여러분이 만들어 갈 장대현이 얼마나 활기차고 아름다울지 기대가 됩니다. 비록 먼저 졸업하여 장대현을 떠나지만, 그 자리에서도 학교와 후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라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실 일과 인도하실 길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후배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장대현을 졸업하고 나면 더 고단하고 힘겨운 삶의 과정이 펼쳐지겠지만 장대현학교에서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며 이웃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 통일한국 건설을 꿈꾸며 준비하는 자, 세계 인류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장대현을 빛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장대현학교와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후원자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장대현학교 선생님들, 후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선교, 가정’ 그리고 장대현학교

유치관 (교사, 수학과목)

2019년 3월 즈음 한국에 있는 친한 지인이 부산에 ‘장대현학교’라는 곳이 있고 ‘그 학교에서 수학교사를 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뉴질랜드의 작은 한인교회 선교사로 있었고 종교비자 연장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냥 듣고 넘겼습니다. 그 후 두 달이 지났는데 비자 연장이 어렵게 되자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게 되고 장대현학교가 생각나서 학교에 대해 알아보니 교장선생님이 임창호교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창호교수님은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재학시절 저의 논문 지도교수님이시자 교육실습 담당교수님이셨습니다. 당시 교수님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기독교교육과 수업을 하셨는데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장대현학교에 이력서를 넣게 되었고 한국입국 이후, 2019년 8월 말부터 장대현학교에 전임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졸업 후 지금까지 약 12년이라는 세월을 돌아보며 제 삶을 ‘교육, 선교, 가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신대 기독교교육과를 졸업한 후 충남금산에 있는 사사학교에서 약 6년 간 수학교사로 있으면서 기독교교육과 대안교육을 경험하였고 이후 태국 치앙마이와 뉴질랜드에서 약 5년간 선교사로서의 삶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치앙마이에서 ‘아버지집’이라는 가정선교팀으로 있으면서 가정의 회복이 교육, 그리고 선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대현학교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수학교사가 필요했고 저의 부르심도 ‘교육, 선교, 가정’이었기에 ‘장대현학교로 오기 위해 들고 돌아 여기까

지 온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교육과에서 배운 기독교세계관, 사사학교에서 경험한 기독교교육, 태국 치앙마이와 뉴질랜드에서 경험한 선교사의 삶과 가정사역, 이 모든 것을 ‘장대현학교’라는 교육과 선교, 가정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음이 감사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인으로서 마음 한편에 있는 부담감으로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북한으로 가서 선교하리라고 생각만 했지 정작 북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통일과 탈북민들의 삶과 탈북민의 자녀문제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의 장대현학교와 장대현교회에서의 시간을 통해 북한과 탈북민, 탈북민자녀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 사람이고 말도 통하기에 그냥 한국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언어, 음식, 문화 등에 차이가 있는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탈북민들이 경험한 북한과 지금까지의 삶은 보통의 한국 사람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꿈꾸며 실제로 통일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탈북민들을 알아야 하고 그들과 하나 되어 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대현학교는 매우 상징적인 곳입니다. 장대현학교에는 직접 탈북을 경험한 학생, 탈북민 자녀로 중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으로 입국한 학생, 탈북민 자녀로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 일반적인 한국 학생 이렇게 네 부류의 학생이 함께 통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다른 부류의 학생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하나 되는 것이 작은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대현학교는 이미 작은 통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실제로 통일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통일 이후에 있을 여러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감에 있어 귀하게 사용되리라 생각합니다.**

가끔 ‘이 학교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의 역할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장대현학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음에,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학생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



왜? 지금? 여기인가?

양재령 (자원봉사자, 미술교과)



2014년 봄, 다니고 있던 교회의 성악가 한 자매로부터 명지에 장대현학교라고 목사님과 몇몇 젊은이들이 헌신하여 봉사한다는 탈북대안학교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당시 난 시내 모 예술 고등학교에서 학교 이전과 학교 체제 변경을 총괄하는 교무부장 업무로 거의 매일 12시 가까이 퇴근하던, 일에 파묻혀 있을 시기이기도 했다.

사실 그 학교는 30여 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마음먹고 자원하여 간 근무지인지라 각각의 학생들에게 갖는 애정이 각별하였고, 방학과 휴일도 없이, 차가 막히는 출근길조차도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감사의 시간으로 여기며 달콤하고 애뜻했었다. 초인적인 업무라고 했지만, 마지막 근무처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며 자부심을 가진 당시의 나로선 당시의 일이 어렵거나 많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그 당시 학교는 학교 이전으로 인하여 많은 기자재와 집기들이 있었고 아깝지만 폐기되거나 이전될 예정이었다. 학교의 물건은 마음대로 버릴 수 없는지라 당시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께 모든 것이 부족하던 장대현학교의 사정을 말씀드리니 흔쾌히 허락하시고 절차를 찾아주셨다. 박영진 선생님이 트럭을 빌려 직접 운전하시고 여선생님들은 그 무거운 책상과 집기들을 직접 싣고 옮겨와 새로 페인트칠하고 모서리가 흉하게 망가진 테이블은 천으로 덮어씌우고, 각 방 마다 기증받은 컴퓨터와 모니터를 옮겨 세팅하고. 학교 구석 구석 모든 곳에 선생님들의 손길로 다듬어져 가고 있었다.

그즈음에 만난 장대현학교의 초석을 세우신, 임창호 목사님을 비롯한 지금은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룬 박영진·박소영선생님, 정명희 선생님, 이은미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동안의 나의 교직 생활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의 열심은 열심이 아니었고, 내가 쏟은 애정은 정말 보잘 것 없었음을...

이렇게 헌신하시는 젊은 선생님들의 자세나 태도를 보면서 '세상의 명예나 직위, 급여, 능률과 성과로 평가되는 이시대에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움직이게 할까?'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때 내가 "선생님, 이렇게 고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안쓰러워하니 "뭘요~ 선교지에 나가계신 분들도 계시는 걸요" 이렇게 대답하신 모 선생님.

장대현학교는 기도로, 그리고 독지가들의 기부와 도움으로 채워져 가는 중이었다. 젊은 선생님들의 열정과 형편없이 거칠어지고 망가진 손길 덕분에 장대현 학교는 차츰차츰 부족함이 채워져

나가고 나날이 변화되고 기대되는 학교로 바뀌어졌고 나도 자연스럽게 교직원생활을 마감하고 이 학교에 와서 학생들과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때 처음 만난 학생들은 멀미가 심하여 차를 타고 이동하여 미술관에 체험수업 하러 가는 것을 힘들어 했고, 햄버거나 피자, 우유 등을 못 먹는 다거나 심지어 김밥에 햄을 빼내고 먹기도 하였다. 그리고 매실 밭에 열린 매실을 보고 살구라고 생각하였고 모국어인 한국말보다 중국어가 더 친숙하고 편안했었다. 그러던 그들이 이젠 핸드폰과 아이패드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오히려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기도 하고, 낯선 곳 어디에든 찾아갈 수 있고, 숨죽이며 살았던 중국 땅도 당당히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찾아가고, 어떤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고, 한국 학생들과 겨루어도 술술 막힘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심지어는 영어로도 막힘없이 대화를 해낸다.

그동안 이 학교를 거쳐 졸업하고 새롭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간 학생들은 대학으로, 취업으로, 멀리 미국까지 그들의 지경을 넓혀 자라 나가고 있다.

이들을 위해 밤낮으로 함께 돌보시며 지켜주시던 선생님들도 새로운 임지로 떠나시기도 하고, 새로이 봉사하시는 선생님들로 채워 주셨고 각나라에서 와서 봉사하신 외국인 선생님들과 봉사자들도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도 하셨지만 지금도 잊지 않고 기도로 보태주시는 덕에 오늘의 장대현학교는 더욱 굳건해져서 통일 조국의 장대현 학교가 되는 마중물 역할을 잘 해내리라 믿는다.

장대현의 보이지 않는 손

정정남 / 전영이 / 도경미



1986년부터 1992년까지 방영된 '맥가이버'라는 미국드라마가 있습니다. 정부산하 비밀 재단의 특수요원인 맥가이버가 전세계를 누비면서 활약하는 내용을 그린 첩보 액션 드라마인데 주인공 맥가이버는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장대현학교 정정남관리원님 또한 못하는 게 없으셔서 학교에서는 정가이버님으로 통하십니다.

관리원님은 20살이 되던 1971년에 이미 북한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셨습니다. 북한은 남한처럼 전문운전학원에 1주일 다니면 면허증을 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전문적으로 운전엔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속성으로도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크게 이론시험 합격 후, 실기(코스)시험을 치고 마지막으로 장거리 운행 시험을 치르는 과정은 우리와 동일한데, 이론시험 과목에 당정책 관련, 로작(김일성, 김정일의 발언을 엮어 놓은 서적)이 있어 이를 암기해서 치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웬만한 차량 정비는 직접 차량 전반에 대해서 수리할 줄 아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와 확실하게 다른 차이점입니다.

26년간에 걸쳐서 북한에서 운수업을 하셨던 관리원님은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97년에 중국으로 도강을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2001년에 한국으로 입국을 하셨습니다. 배운 기술이라고는 운전 밖에 없는지라 2002년부터 트럭운전을 하시면서 돈을 벌어서 북한에 남겨져 있던 아내와 두 자녀를 데려 오셨습니다. 그 뒤로도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그만 2010년에 허리를 다치시게 되면서 더 이상 트럭운전을 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장대현학교 건물을 기증받는 것을 지켜보셨던 관리원님은 가족들과 함께 돌연 캐나다행을 하셨습니다. 모든 한국살이를 정리하고 이민을 선택하셨지만 떠나 간지 1년 만에 다시 부산으로 되돌아오시게 되었고 드디어 장

정정남 관리

대현학교가 개교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부터 장대현학교에 고용이 되어 학교버스 운전, 시설관리, 통일털밭 가꾸는 일을 도맡아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휴식하실 때마다 간간히 질문 드렸던 내용에 대한 즉문즉답입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장은숙'이라는 아이가 고려대학교를 들어갔다는 사실이지. 북한에서 와 가지고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갔다는 것은 큰 성과란 말이야.

Q.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겪은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궁금합니다.

A. 글쎄, 2019년 가을에 태풍이 와서 학교 지붕이 날아갔던 일이 떠오르네. 그때 생각하면 아이들이 기와에 안 맞아서 다행이고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도 다 피해서 떨어졌고 내가 키우던 채소만 조금 피해를 입었지.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진 기와장을 새로 붙이는 방수 작업하는데 다리가 후덜 거리더라고.

Q. 학교 일을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A. 특별히 힘들다기보다 나이 들면서 기운이 약해지는 게 가장 신경쓰이지 뭐. 건강이 약해지는 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학교에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나를 믿고 일을 맡겨 주니까 편안하게 일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2018년 여름에 공구함을 제작하다가 그라인더 날을 놓치는 바람에 그대로 왼쪽 무릎 쪽에 있는 생살이 잘린 적이 있는데 근육만 다치고 뼈에는 이상이 없어서 다행이었지. 그때는 진짜 아찔했다고. 사고는 순간이란대.

Q. 어떨 때에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A. 어떤 날에 선생님들도 나를 찾고 주방에서도 찾고 기숙사에서 애들도 부서진 거 고쳐 달라고 한꺼번에 찾을 때가 있는데 여기저기서 모두가 나를 찾을 때에 내가 쓸모가 있구나! 하고 보람이 되지. 그리고 아이들이 밥을 잘 먹는 모습들, 내가 못 배워서 그런가 대학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Q. 학교(학생, 교사)에 당부의 말씀이나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A. 판 거 있나, 그저 학교가 설립된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 잘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데.

Q. 앞으로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A. 내 나이 70살이 넘었는데 이 나이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흔치 않다고. 일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그만 나오라는 소리 안 하니깐 좋은데, 어떻게 하든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해야지 다른 거 있나?

이제는 은퇴할 나이에 다들 노후 걱정하기 바쁜데 내게 할 일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정정남집사님,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하셔서 오랫동안 학생들 곁을 지켜 주세요.





2014년에 개교한 장대현학교는 기숙학교로 기숙사생활이 교육과정 중 하나인 학교인데요, 우리 학생들은 기숙사라는 공동체에서의 생활을 통해 존중과 협력, 그리고 신뢰와 사랑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원활한 기숙사 생활을 위해 기숙사에는 사감선생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2019년도부터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동거동락하고 계시는 전영이 사감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Q. 장대현학교에 오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으며 어떤 계기로 장대현학교 사감 선생님 일을 하시게 되셨나요?

A. 2018년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필리핀에서 23년간 선교 사역을 담당했어요. 네그로스주와 루손 등 여러 곳에서 학교사역, 교회사역, 빈민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 2018년도 한국에 왔을 때에 재단법인 북민실의 이전 사무국장이었던 이지연선생님의 소개로 장대현학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해 여름에 임창호교장선생님을 만나서 학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곳도 북한, 중국, 한국 태생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 선교지인만큼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하셨지요. 본래 제 계획은 필리핀 사역을 정리하고 남미(브라질)로 선교사역을 나가는 것이었는데 내가 가기 원하는 곳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곳에 있는 것이 선교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기숙사 사감선생님보다는 매일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공부를 하는 교목선생님의 모습처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통로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학교에 왔습니다.

전영이 사감

Q.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A. 저의 일과는 오후5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방과후수업을 관리 감독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요. 매일 저녁8-9시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예요. 예배 후에는 숙소 점검을 하고 모두 취침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침이 되면 기상하여 요즘은 잘생긴 영어선생님이 아이들을 인솔해서 아침 산책을 나가시기는 하지만 (웃음) 함께 산책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저의 하루 일과가 끝이 납니다.

Q. 학생들과 저녁시간마다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앙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A. 처음에는 저녁 예배시간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어요. 그러나 며칠 지나면서 눈빛들이 달라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지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는 노력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적용하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 안에 살고 주님의 제자로 키워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 속에 살게 하고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Q.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숙사 생활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이런 와중에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기숙사생들이 안정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지요. 같이 먹고, 자고, 함께 부대끼면서 끈끈해지기 마련인데 서로 대면하는 시간 대신에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감사했던 것이 있다면 학기가 흘러갈수록 학생들이 저를 편하게 여겨 제 방으로 와서 뒹굴고 학생들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을 만큼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교사는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아이들과 지내면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대현학교에서의 또 다른 섬김과 선교를 경험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A.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은 사랑과 혜택을 제공받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받는 것이 당연시되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받은 만큼 나눌 수 있기에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고 생활하는 장대현학교 아이들이 점점 더 감사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 줄 믿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때로는 학생들의 눈높이를 잘 못 맞출 수도 있겠지만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 졸업식 노래가 생각나는데 '앞에서 끌어 주고 뒤에서 밀며~' 정말로 이 노래 가사처럼 처음에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를 기다려주고 어느새 형제보다 더 각별해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곳에서 가정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국가를 배우는 세계관이 저절로 습득되는구나! 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점심시간이다!”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중 하나인, 점심시간. 아이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장대현학교에 요리왕 비룡 뺨치는 요리 실력을 가지신 선생님이 계셔서 그렇다는데요. 무슨 요리든 푹푹딱딱,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식생활의 변화들을 가미해서 학생들의 입맛에 딱 맞추시는 도경미 조리사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Q. 언제부터 장대현학교 조리사로 일을 하셨으며 이 곳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A.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었는데 2012년에 부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홀로 계시는 친정어머니도 모실 겸 해서 오게 되었지요. 인근에 있는 명지 명호초등학교에서 조리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2개월 임시직으로 급식실에서 일을 하던 차에 하루는 교장선생님께서 다급해 하시면서 장대현학교라는 대안학교가 개교를 하는데 혹시 조리사 경력과 특별히 신상이 있는 사람이 있냐고 말씀하시니까 주위에서 모두 저를 쳐다보셨죠. 그런데 저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해서 큰언니를 소개해 주었어요. 교장선생님께서 저희 언니를 보시더니 교회 권사님이요 요리솜씨가 좋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셨지요. 주방에서 일하실 조리사 선생님을 놓고서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잘됐다고 좋아하시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학생도 많지 않았었고 정식 영양사가 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언니가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간간이 제가 와서 식기들도 같이 사고 주방을 세팅하는 일을 도와주었어요. 그러다가 언니가 손주를 돌봐 주어야 하게 되면서 학교를 개교한 이듬해인 2015년부터 제가 정식으로 일을 해오고 있어요. 재단이 설립되고 정식 조리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 때에 자연스럽게 언니에 이어서 제가 맡게 된 것이죠.

Q. 처음에 학생들의 입맛을 맞추기가 힘들시지는 않으셨나요?

A. 처음에는 서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은 한국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아무리 정성 들여서 음식을 해 놓아도 못 먹는 음식이 많았지요. 참기를 들어간 음식을 안 먹는 아이, 버터, 치즈, 케찹을 안 먹는 아이, 소고기를 안 먹는 아이, 생선도 명태만 먹었던 아이, 심지어 김치를 못 먹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젓갈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대부분 생식 위주로 텃밭에서 재배하는 채소류를 그대로 내놓거나 김밥, 잡채 등을 많이 했었어요. 오이, 고추, 무, 대파 등을 아무 조리도 하지 않고 그냥 씹어 먹는데 그 양이 엄청났었어요. 지금은 그 때에 비하면 먹는 양들이 1/3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정상황도 열악해서 사회단체에서 기부해 주는 식품에 의존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공급이 여의치 않아서 많이 힘들었지요.

도경미 조리사

아무튼 초기에는 김밥, 볶음밥 등 분식 위주로 많이 만들어서 주었는데 1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한식 위주로 식단이 바뀌었지요.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나가면서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점차 없어지고 신평로교회에서 1주일에 2-3일 정도 점심 한 끼 급식을 담당해주시면서 한국음식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었어요. 최근에는 급식비가 넉넉히 지원이 되면서 상황들이 아주 많이 개선되었어요. 지금은 입맛을 맞추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졌고 특히 고기는 없어서 못 먹는 정도가 되었답니다. 반드시 한 끼에 고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지요. 그렇지만 해물은 여전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학생이 1-2명 있어요.

Q. 어떤 때에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A. 그야 뭐니 뭐니 해도 아이들이 식사 시간을 기다리고 행복해할 때, 한 끼의 밥으로 행복해 하는 것을 느낄 때지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니깐 젊어지고 활동적이게 되고 점심시간에 아이들의 웅성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가 제일 좋아요. 종이 치지 마자 “오늘 메뉴 뭐예요?” 하고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정식 같은 따뜻한 밥을 제공하는 이 일이 참 좋네요. 선생님들이 사랑이 넘치셔서 아이들을 더 잘 먹이고 싶은 욕구가 함께 어우러져서 연합하여 주방 일이 잘 이루지는 것에 감사합니다.

Q.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수업과 통학생들이 생겨나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따로 식사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어요. 쉬면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아이들을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요. 학기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신평로교회 급식사역이 무기한 중단됨으로 인해서 하루에 한 끼 준비를 하던 저의 일이 모든 끼니를 해결해 주어야 했고 3-4개월 정도는 일이 몇 배로 늘어났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반찬 3가지 정도를 만들던 것이 7-8가지를 만들어서 점심, 저녁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준비해야 했지요. 그래도 이제는 많이 안정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들쭉날쭉한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Q. 끝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한 말씀해주세요.

A. 한국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루하루에 주목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밥을 먹을 때 사람이 가장 순수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무엇이든지 맛있게 잘 먹으면 좋겠고 다양한 음식에 적응했듯이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여 하루하루 건강하고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대현학교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을 섬기시는 정정남관리원님, 전영이사감선생님, 도경미 조리사님의 말씀 속에 학교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묻어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랑의 마음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칩니다.

■ 인터뷰 유달주 / 편집 마주은

| 소식지특집 No.2 |

탈북 국회의원을 만나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는 북에서 오신 두 분의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 두 분 다 2020년도부터 국정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그 분들은 바로 2006년에 탈북하신 지성호의원님과 2016년에 탈북하신 태영호의원님이십니다. 두 분의 의원님들이 장대현학교 학생들과 장대현학교를 섬기고 있는 자원봉사선생님들, 그리고 후원자님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지성호의원
제 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북한인권단체 나우 NAUH 대표 역임
북한 꽃제비 출신
2021.06.15 장대현학교 방문



지성호 국회의원님, 안녕하세요. 저희 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안녕하세요. 2006년에 탈북해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지성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국회의원이 되신지 근 1년이 되셨는데, 1년 동안 국정활동을 하신 소감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원래는 국회에 입성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어야 탈북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 입성하고 어려웠던 일도 있지만 기쁜 일도 많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고요. 현재는 적용이 되어서 여유가 생긴 상태입니다.

탈북단체 나우(NAUH)의 대표로서 북한인권운동활동을 하시다가 국회라는 더 넓은 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셨는데 인권활동을 했을 때와는 또 다른 보람이 있으시다면?

국회에서 얼굴을 공개했을 때 탈북자라는 시선과 자산을 공개할 때 가장 마지막에 있다는 것이 두려웠을 때 내가 너무 어리버리하게 살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 잘 살았구나 생각이 드는 것이 **비록 저에게는 그렇다 할 재산은 없지만 많은 생명을 살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우라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제가 살린 사람들만 해도 500여 명이 되니까요. 나우단체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성향이 있지만 모두가 북한인권이라는 방향 아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탈북 이후 저는 탈북민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진심 어린 접근을 했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국회에까지 입성하게 되었네요. (웃음)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북한인권을 위해 일하는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정대상을 받으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민 가운데는 제 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많은데 그들이 대한민국에 가고 싶어도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서의 어려움과 위험, 그리고 정보의 부족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대한민국 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북한을 나와서도 대한민국 입국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죠.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정착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정착지원금이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해외에 10년 이상 체류한 탈북민은 정착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어있었죠. 이러한 법 조항에 대해서 해외에 10년 이상 체류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탈북민들과 동등한 지원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대현 학교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탈북학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그들이 꿈나무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어떻게 교육하냐가 아주 중요하죠.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그를 통해 살아갈 삶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성공적 교육

은 그들로 하여금 한반도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육은 그들을 후퇴하게 만들 수 있겠죠. 특별히 교육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자유라는 가치를 배움으로써 통일에 대한 꿈도 꿀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탈북민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만드는 교육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참 교육이고 비전있는 교육이고 탈북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통일리더로서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인이 본인의 과거를 부끄러워한다면 리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창피함이 아닌 당당함으로, 그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해 본인의 노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찌 됐든지 감사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보면 학교나 회사에서 탈북민이라는 것을 숨기는 친구들도 있고 반대로 밝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무엇이 더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탈북민으로서의 당당함이 언젠가 통일이 되었을 때 당당한 리더십으로 직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당당함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로 인해 더 좋은 일을 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참 교육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인권활동과 통일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 가치의 문제라고들 이야기



하죠. 저도 지금 미얀마, 홍콩, 대만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인권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이고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권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도 우리와 같은 잣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대할 때 정치적인 편견을 걷어 내고 많은 사람, 한 영혼의 가치에 중심을 두는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요. 통일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든지 통일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모두 다 이해가 돼요. 통일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어찌 됐든지 준비는 되어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처해지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힘과 면역력을 키우

라고 우리 탈북민들을 보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을 사회 곳곳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함께 사는 연습을 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함께 통일을 이루어나갔으면 합니다. 그들에 대한 특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앞으로 통일에 대한 투자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통일을 가장 앞서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탈북민을 그저 한 사람의 탈북민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의 탈북민에게 한 행동이 북한 2,500만 주민들에게 한 것이기에 그런 마음으로 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영호 의원

제 21대 국회의원 (국민의 힘)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전, 주영국북한대사관 공사
2021.11.02 장대현학교 방문



태영호의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대현학교에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대현과 의원님 사이에는 특별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태영호의원입니다. 평소 탈북학교에 관심이 많아 여러 탈북학교에 방문을 하고 있고 장대현학교에도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다들 놀라실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칭이 바로 '장대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대현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때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바로 장대현교회입니다. 제가 바로 1962년 7월 15일 장대현교회가 있던 자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장대현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하나는 종로동 하나는 창전동으로 명칭을 바꾼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종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장대현에 와 있고 저도 고향을 떠나서 이곳 장대

현에 와있는데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장대현에 태어나셔서 현재 장대현학교에 계시니 정말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혹시 현재 장대현 지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아십니까?

현재 장대현 지역은 명칭과 함께 그 곳에 있던 교회까지 없어진 상태입니다. 남과 북의 비극의 원천이 바로 장대현이라는 명칭과 장대현교회를 없애버린 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 앞에 김일성은 정권을 잡자마자 장대현 교회를 없애고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 자신의 형상을 본뜬 동상, 즉 우상을 세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장대제언덕이라고 불렀던 곳마저 갑자기 어느 날 북한이 만수대언덕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넓은 북한 땅에는 대략 4만 개 정도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있습니다. 동상을 세울 때 1개구에 1개, 유명한 곳에 세운다는 등 규정이 따로 있는데 유독 장

대현교회가 있던 그 좁은 곳에 100m간격으로 동상을 세웠습니다. 만수대언덕에 동상을 세우고 그 100m 떨어진 창전소학교에 동상을, 또 그 100m 떨어진 장대현교회가 있던 자리인 학생소년궁전에 동상을 세우고 또 그 100m 떨어진 대동동소학교에 동상을 세우는 등 가는 길목마다 김일성 동상을 세워두었고 이는 한국역사의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살았던 지역과 그 일대가 공산주의 진영으로 완전히 변모한 모습에 안타까움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에서 계시다가 대한민국에 오신지도 어느덧 5년이 되었는데 의원님이 보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은 대단히 열려있고 포용적인 사회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국회에 2명의 탈북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00석의 대한민국 국회의석 가운데 1석을 가지려면 민주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10만 이상의 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민의 수는 대략 32,0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3만 명의 표를 가지고서는 국회의석을 차지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2명이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 국회의 2명의 탈북 국회의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라요. 아니 32,000명밖에 없는 극소수의 집단에서 2명씩이나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니, 정말 대한민국은 열려 있는 나라고 대단한 나라라고 감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북한에 계셨다가 오셔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가치가 더 많이 와닿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들 들던 중에 국회에 입성하실 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으로 인

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5년차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꿈도 못 꾸었습니다. 5년 동안 남한에서 살면서 북한에서 몰랐던 대한민국의 좋은 점과 민주주의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북한에 있는 제 동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는 적대적인 생각을 완화하고 서로 화해하여 통일로 하루 속히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현재 국민의힘 당에서 국회의원 공청을 주겠다고 해서 제가 국회의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시 강남 갑 지역구 선거에 나가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역구 선거에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학연, 지연, 혈연의 3가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온 저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갖추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과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선거기간 동안 "저는 지연, 학연, 혈연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강남 주민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저의 호소 앞에 강남 주민분들께서 '내가 저 태의원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당선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줘야지, 저 사람 아무것도 없으니깐 내가 도와줘야 돼' 라는 생각으로 다가와주셨고 순식간에 저와 강남 주민분들이 한 가족이 된 듯했습니다. 제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시민분들이 만약 저 사람이 단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에서 졌다고 한다면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 우리가 선진국이고 중견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한국이 폐쇄적인 사회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 출신이지만 우리가 밀어주자! 해서 선거에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당선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 계실 때도 정계에서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평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평양, 그리고 고위층으로 지내셔서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으로 망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도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한국에 왔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한 인간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특이한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한 3-4년 정도 유럽 수도에서 생활하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북한에 돌아가 3-4년 살다가, 또 시간이 되면 유럽에 갔다가 북한에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사는 유럽과 제일 못사는 북한을 넘나드는 삶을 산 것이지요. 그러다가 제가 34살이 된 1996년, 가족들을 데리고 덴마크란 나라에서 외교관생활을 했었는데 그 때 처음으로 북한사회와 북한체제가 반인류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길바닥에 거지가 우글거리고 빈부격차가 정말 심하다고 북한에서 배운 자본주의 사회와 덴마크의 모습은 완전히 판박이었던 것입니다. 그 때부터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경계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상황에서 집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의 자녀들은 영국학교에 가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3년 동안 배우다가 다시 북한에 돌아가서 북한학교를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북한학교에 등교하기 전 매 아침 저의 아내가 아이들에게 "절대 영국에서 배운 것을 북한 아이들한테 이야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 잡혀갈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이 있어서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자유롭게 다 들을 수 있고 대통령선거도 일정 시기가

되면 하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에 대해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북한 선전선동 정책에 맞게 그저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아이들 스스로 자유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영국과 같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걸까?', '나는 왜 시간만 되면 북한에 가서 부모님과 자유롭지 못한 북한체제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저와 저녁시간마다 북한체제에 대한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버린 2016년이 되어 저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확 와 닿았고 북한이 얼마나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다시 북한에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할 짓이 아니더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를 주는 것이다 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유를 위해서 한국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유를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께 자유란?

저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자유라고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저는 반대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북한에 살아보니까 북한에서는 본인이 죽어도 하기 싫은 일도 국가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 정말 많기 때문에 자유를 저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언젠간 북한에도 자유가 들어가고 남과 북이 하나되는 통일의 그 날이 올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통일은 반드시 될 것이기에 통일의 그 날을 위해 지



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장대현학교 학생들이 부러워요. 통일이 되는 날 여러분들은 30, 40대, 한창 왕성하게 일하고 있을 때일 겁니다. '그 때 나는 과연 무슨 일을 할까, 북한에 가서 나는 무엇을 할까, 북한에 가서 내 형제자매, 친척들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당당하게 고향에 나타날까?' 이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던져 보아야 합니다. 제3국 출생자녀분들 가운데 북한과 중국 국경 전선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길림성까지 매우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길림성까지의 거리가 24시간 하루시간권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통일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서 학사자격도 따고 회사에도 취직하고 행정고시를 봐서 공무원도 되고 통일의 그 날에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장대현학교에는 탈북청소년과 제3국 출생 청소년,

통일을 마음에 품고 있는 한국출생 청소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우리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대단히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여러분 또래 친구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삶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곳 장대현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은 함께 모여서 공부도 하고 기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쌓아가고 학생 수에 비해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것은 대단히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경계를 누구보다 빨리 허무는 것이다.' 라는 답을 내렸어요. 보이지 않는 경계 심리 또는 사회구조적인 경계를 빨리 허물고 앞으로 치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주저하고 해결방도를 찾지 못한 채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경계를 허물고 새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 하는 사람들의 특

징을 보니까 태어나서 한 곳에 있지 않고 지리적으로 많은 곳을 가보고 많은 곳을 이동해본 사람들이 경계를 빨리 허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북한에서 한국을 오는 과정에서 중국, 몽골, 동남아 등 많은 곳을 거쳐서 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있는 장대현학교에 오기까지 얼마나 멀리 왔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먼 곳을 이동했던 이러한 경험들이 커서 얼마나 큰 자산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를거예요. 나중에 커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회사에 취직해서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같은 일 앞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과 수난을 겪으면서 지리적으로 멀리 이동해본 분들에게는 그것이 크게 와 닿지 않게 됩니다. 내가 악어가 우글대는 메콩강도 건넌 사람인데 하면서 금방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발휘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 온지 1,2년 밖에 되지 않은 제 3국 출생 자녀들의 경우에 보면 한국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이야기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한국어도 익숙하지 않은데 언제 한국어를 배워서 언제 수능보고 언제 대학가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국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또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서 영어도 할 줄 아는 사람의 뇌 구조를 들여다보면 지적으로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해 보는 것이 후에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같은 경우에 회사나 대학에서 사람을 뽑을 때 성적도 보지만 그 사람이 어떤 경로로 지금까지 왔느냐, 집안 환경은 어떠한가하는 배경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서 함께 협동해야 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경험을 토대로 자그마한 문제 해결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택을 받는 분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 인터뷰, 편집 마주는



왼쪽부터 태영호의원, 임창호이사장, 오혜선사무

2

장대현지역아동센터

○ 장대현지역아동센터는 탈북민 자녀들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통해 올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섬김이

- 센터장 김숙진
- 생활복지사 하선주
- 복지사 김기애
- 급식도우미 정경영

기타교사

- 과목별 아동복지교사 2명
- 프로그램강사 3명
- 대학생 멘토 4명
- 출석아동 현재 23명 (2021년 11월 현재)

2020 / 2021 주요행사

2020



12월 법사랑 부산서부지역연합회 후원금 전달식
(온라인학습기기 지원)



12월 오카리나 발표회



5월 쿠키플레이



6월 요리교실

2021



1월 캐리커처 (재능기부나눔)



2월 사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바디 측정



6월 UN기념공원 방문



9월 추석맞이 전통놀이 체험



4월 하나우리 봉사단 후원품 전달식



5월 어린이날기념 피자파티



9월 드럼발표회



11월 히어로테마파크 견학



Happy New-sports!

장대현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의 수에 비해 사용공간이 넓은 편입니다. 그러나 활동성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기엔 언제나 부족한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아동센터 근처에는 넓은 체육공원과 통일아시아드공원이 있어 아이들이 뛰놀기에 좋은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들 옆에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어서 아이들은 멋진 경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체육프로그램이 따로 없던 시절, 아이들이 센터일과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슬래잡기라도 한번 하자고 센터

선생님들께 어리광을 피우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프로그램은 밖에 나가서 신나게 뛰어 노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필요를 반영해서 장대현지역아동센터에서는 체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체육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2018년도부터입니다. 체육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한 번 진행이 되는데 강사 선생님의 재미있는 지도 덕분에 소극적인 아이들도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펄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체육 선생님의 꿈을 꾸고 있는 아이는 앞으로도 체육프로그램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체육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인근에 계시는 센터장님들과 체육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를 계기로 3개의 센터 아이들이 다함께 모여 학년별, 수준별로 연합해서 진행하는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구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센터의 크고 작은 일들로 늘 분주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육활동을 제공해주고 싶어 하는 센터장님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 “삼성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2020년 배움터 교육지원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고 1,2차 서류심사, 3차 면접을 거쳐 지역형 교육복지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우리함께 동(洞) 동(童) 동(動)> 이라는 사업명으로 뉴-스포츠를 활용한 운동교실을 시작하려는 즈음에 그만 코로나19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각 센터가 일시적으로 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이 되어 비로소 긴급 돌봄 아동 대상 센터가 다시 운영을 재개되었고 체육수업을 하고 싶은 아이들은 센터로 오라고 하니 학교도 못가고 집안에서 온라인수업만 듣던 아이들이 너무 신나하면서 센터로 왔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여 숨이 차긴 했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넓은 운동장에 맘껏 뛰놀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활



기차게 수업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기존 체육프로그램 과정을 수정하고 변경하여야 했지만 감사하게도 거리두기 시행 전, 발대식과 미니 올림픽 등 굵직한 행사들을 틈틈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각 강사들이 3개의 센터로 파견이 되어 센터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활동지가 실내가 된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은 에너지를 뿜을 수 있는 유일한 활동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더욱 더 체육시간을 기다립니다.

혼자 노는 것보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웃음소리를 찾고 즐거워하며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센터장님의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뉴-스포츠라는 체육활동으로 아동들에게 배움의 즐거움과 공동체가 주는 유익함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고 싶어 2021년 새해(Happy New Year)를 맞이하여 해피한 뉴-스포츠를 계속 이어나가고 하고 싶다는 의미로 **Happy New-sports!** 라는 이름으로 삼성장학재단에 2년차 지역형 교육복지사업에 지원을 하였고 선정되어 또 한 번 아이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선물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그 날을 간절히 기다려 봅니다. 

아동이 행복한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가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몸도 마음도 튼튼! 체육 프로그램

황소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체육 강사 황소은입니다. 저는 현재 장대현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체육을 지도하기 전에 피트니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제가 교사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던 회원님의 추천으로 아동센터에서 체육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소극적이고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어떤 내용과 종목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 가운데 세운 첫 목표는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만들어주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구상하여 선택한 것이 바로 '뉴-스포츠'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다함께 체육수업을 하는 아동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에 상관없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을 변경하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 체육에 흥미를 느꼈는지 일주일에 하루뿐인 체육수업과 체육선생님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참 고맙고 그런 아이들이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 그 모습이 정말 예뻐했습니다. 매 수업마다 수업내용을 궁금해 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아이들 덕에 더 즐거운 수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학교에서 피구 했는데요, 제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선생님 오늘 달리기에서 제가 1등 했어요.", "선생님 오늘 학교에서 축구를 했는데 제가 골을 넣었어요." 아이들이 학교 체육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성장해갔고 그 성장의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행복합니다. 처음 아동센터에 왔을 때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키가 훌쩍 자라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지금처럼 항상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자신감 충전! 오카리나 프로그램

전유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카리나 강사 전유나입니다. 현재, 장대현지역아동센터에서 4년째 아이들에게 오카리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악보를 읽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반올림 합창단 정기연주회에 특별출연을 할 정도의 연주 실력을 갖추게 되었으니 참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특별히 기억이 나는 아동이 있는데 곡을 배우는 과정에서 잘 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서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정00가 있었지요. 처음에 울기만 하는 아이의 모습에 수업진행에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의 상황을 빨리빨리 케치할 수 있게 된 점이 기억납니다.

저는 음악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오카리나로 배운 곡들을 연주해보는 등 무대에서는 기회를 많이 주는 편인데 그 이유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해봄으로써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더하여 무대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연주하고 칭찬받는 경험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아이들이 학교특기활동시간에 센터에서 오카리나를 배운 것을 가지고 반 친구들 앞에서 자신있게 연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람도 된답니다. 이제는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많다보니 센터에서 자유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오카리나를 꺼내어 부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고 센터장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오카리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연주 실력이 향상된 것이 참 뿌듯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어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연주무대에 서지 못 했지만 이후에 또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창의력 쑥쑥! 미술 프로그램

김지혜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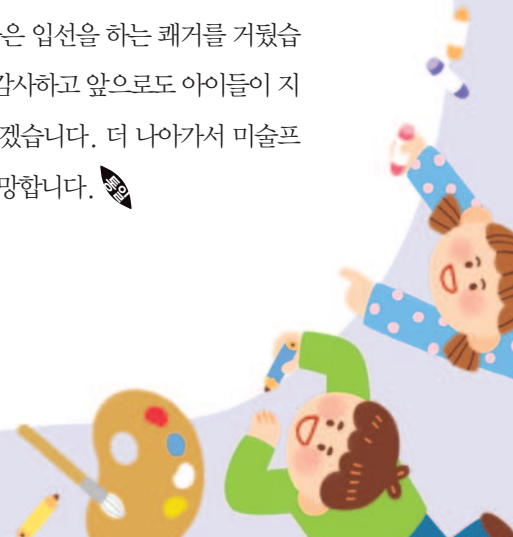
“미술선생님 오셨다~”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벗기도 전에 반갑게 맞아주는 장대현의 귀요미들을 만나는 시간. 늘 반갑게 맞아주는 아이들 덕분에 한주간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장대현지역아동센터에서 미술프로그램을 시작한지 3년째, 매년마다 진행되는 미술 프로그램이

지만 매년 새로운 주제로 미술지도를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평소에 짓궂고 장난기 많은 아이들도 미술 시간이 되면 작품에 집중을 해서 참여를 하는 편이라 가끔적이면 아이들의 미술 지도를 잘 하려고 신경을 쓰는 편인데 그림뿐만 아니라, 만들기, 아트, 블록 등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종류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작품을 보면 이전보다 정말 많이 나아졌음이 눈에 보이고 아이들 역시 도움을 받아 완성한 작품들이긴 하지만 멋지게 완성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미술프로그램이 있는 날이면 미술에 흥미 있는 아이들이 센터에 와서 그림을 그리고 미술의 기본기를 배우며 실력을 쌓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미술에 남다른 열정과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공모전에 도전을 해서 2019년에는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평화통일”이란 주제로 2명의 아동이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받았고 2020년에는 초록우산재단에서 주최하는 그림 공모전에서 청소년 1명이 우수상을, 다른 아동들은 입선을 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실력이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아이들이 지금처럼 미술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재능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술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정서를 함양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장대현
지역아동센터
에피소드**
중학생편



장대현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들만 이용을 하였으나 최근 2020년부터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중학생이 갑자기 많아졌다. 장대현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할 때 어린이 집을 다니며 방과 후에는 누나와 오빠와 함께 따라 다녔던 6,7살 꼬꼬마들이 7년이라는 시간동안 꾸준히 다니며 무럭무럭 자라 올해 중학생이 된 것이다.

센터아이들 19명 중에 8명이나 중학생이 되었으니 센터정원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보통은 정규 학력과정이 초등학교는 6년 다니면 졸업을 하고, 중학교는 3년이 되면 졸업을 하는데 장대현지역아동센터는 본인이 원한다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니 거의 10년의 세월동안 계속 함께 할 수 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일 것만 같던 아이들이 키와 체격이 훌쩍 자라면서 사춘기 시절에 접어들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워져가는 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잘 이해해야 할 텐데 학교공부를 충실히 하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인지라 학습차이에서 오는 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하지 않을 때가 많아 가정에서 온라인수업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스스로의 학습을 기대하기가 더 어려운 환경의 시기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센터의 중학생들에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의 강사이신 김소희선생님께서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찾아오셨다. 수학이 어려워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와 꾸준한 지도로 우등생이 되기까지 가르친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이 자원봉사를 하신다니 너무나 필요한 시기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선생님이 오신 것이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수학과 역사가 너무 어려워요.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중학교 2학년 태희(가명), 태희의 1학기 수학성적은 49점이었다. 아동센터

에서 수업을 하면서 수학선생님의 열심과 태희의 노력이 합쳐져 한 학기 수업을 마치고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다음 학기에 수학성적이 93점으로 올라간 것이다! 성적이 올라간 태희도 너무 좋아했지만 센터에 있는 모두가 놀랄만한 그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중학생 친구들에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라 여겨져 1박2일 ‘수하아, 놀자’라는 이름의 수학캠프를 진행하게 되었다.

캠프 기간 동안 아이들은 수학선생님과 함께 수학을 활용한 보드게임과 방탈출 게임을 하고 맛있는 야식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먼저 서로 간의 친밀감을 쌓아 나갔다. 그 후 수학선생님과 이야기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에 아이들이 수학공부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은 듯했다. 그를 잘 보여주는 것이 캠프 이후 아이들의 모습이다. 아이들이 센터에 와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아동센터는 다니고 싶지만 센터에서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자주 결석을 하던 중학생 아이까지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다. 수학수업 전날, 숙제를 하려고 집에 문제집을 들고 가는 모습들도 마찮가지. 아이들은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었다.

이를 보면 아이들 모두 공부를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잡아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없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포기하지 않을 용기와 배움의 자세가 지속되기 위해 조건 없는 섬김과 아이들 한 명 한 명 수준에 맞춰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이 장대현지역아동센터에 계속되고 있으니 감사하다.

3

재단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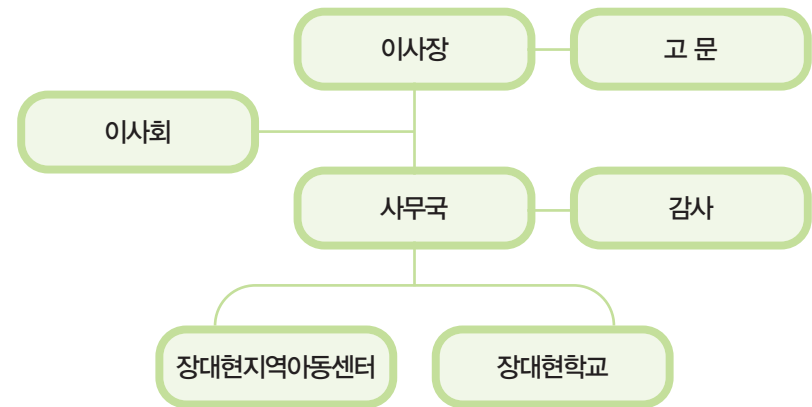
- 명칭**
 재단법인 북한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
 The Alliance of Action Movement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Foundation
- 약칭**
 북민실
 NKHRD Foundation
- 소속**
 통일부 비영리재단법인 325호
 통일정책실 북한인권과
- 재단사무국 스태프**

이 사 장	임창호
본 부 장	유달주
사 무 국 장	강시라
홍 보	마주은

주요사업

- 1) 북한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전략 연구
- 2) 북한인권 개선과 민주화실현, 한반도 통일에 유익한 토론의 장 확대
-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실천
 - ① 북한사회와 탈북과정에서 겪었던 상처에 대한 치유상담
 - ② 북한이탈주민 출신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장학(장대현지역아동센터, 장대현학교)
- 4) 출판사업 및 홍보사업으로 북한인권과 북한 민주화에 관심을 갖도록 안내
- 5) 북한인권 개선과 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내외 모든 단체들과의 연대사업

기관현황



섬기는 사람들

- | | |
|--------------|---|
| 이사장 | 임창호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이사장, 전 고신대학교 교학부총장) |
| 이 사 | 김봉남 (전, CBS기독교방송 부사장)
박용성 (부산진구청소년문화센터 센터장)
송호열 (인제대학교 교수)
안 민 (고신대학교 총장)
최영심 (전, 부산시학부모연합회 회장) |
| 감 사 | 이광용 (비엔지1급종합정보 대표)
최윤화 (미국공인회계사) |
| 고 문 | 박용욱 (전, 국방부차관)
배백식 (노-웨스트 마린 대표이사)
주선애 (장신대 명예교수, 전국여전도회연합구국기도회회장 역임)
Suzanne Scholte (President, Defense Forum Foundation, USA) |
| 자문변호사 | 김예은 (법률사무소 유석 변호사) |

미래통일한국의 리더, 탈북지식청년들을 위한 제1회 P&H 북한인권세미나

| 북한인권세미나, 그 여정의 시작 |



재단법인 북민실에서 2021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 호텔더원에서 제1회 P&H북한인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2021년 통일부 북한인권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통일부 후원으로 진행이 되었다. 4월부터 현장답사와 홍보물 제작 및 사전준비, 강사 조율 등 세미나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5월부터 각 유관기관에 홍보하면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선발하여 행사 준비를 해나갔다. 참가자는 탈북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총 22개 대학에서 40명의 탈북지식청년들이 본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총 4명씩 10개조를 편성하여 세미나 기간 동안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통일리더들과의 동행 |



2박 3일로 진행된 북한인권세미나의 **첫째 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의 접수를 받고 숙소배정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세미나홀로 들어와 조별로 배치된 자리에 착석하였고 비슷한 또래이지만 처음 보는 만남이라 그런지 홀 내부에는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다. 어색한 공기를 깨기 위해 북민실 유달주 본부장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고 청산유수같은 진행과 젊은이들의 열정 덕에 다행히도 분위기는 금세 풀려졌다. 오리엔테이션 진행 후 곧바로 북민실

임창호 이사장이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의 이해'를 주제로 주제강연1을 진행하였다.

세미나 특성상 강의와 질의, 토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자칫하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특별공연 순서로 강혜인 Quartet(쿼텟) 재즈콘서트를 준비하였다. 총 8곡으로 진행된 재즈콘서트는 탈북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곡으로 선정되어 연주되었다.

둘째 날에는 오전에 자유산책을 하며 서로 교제를 한 후에 고신대학교 주승현교수가 '분단의 현실과 남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주제강연2를 진행하였다. 세미나를 모두 마친 후 만족도설문조사를 했을 때 주제강연2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그 정도로 강의 내용이 탈북청년들에게 현실적이고 생생하게 와 닿았음을 알 수 있다. 주제강연2를 모두 마친 후 현인애교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인권의 가치모색'이라는 주제로 주제강연3을, 주성하기자가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적인 시각과 한국인의 인식'이라는 주제로 주제강연4를 연달아 진행하였다. 주제강연이 모두 끝이 난 후 참가자들이 주축이 되어 ①현 정부와 북한인권운동의 방향, ②통일준비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탈북청년들의 실천적 과제, ③통일을 향한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전략, 이 세 가지의 주제로 조별토의를 하고 간단하게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운영규칙을 잘 준수하고 참여태도가 우수한 5명의 표창자를 선발하여 시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그렇게 세미나 홀에서의 모든 일정은 마무리가 되었다.

셋째 날 아침, 모든 참가자들이 8시 50분까지 숙소 체크인아웃을 마친 후 제주자연사박물관, 통일관, 삼성혈을 방문하여 조별로 관람을 하였다. 그곳에서 탈북청년들은 저마다 북한에서의 일화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한국 전통놀이를 하는 등 서로 하나가 되는 시간들을 보냈다. 관람이 모두 끝나고 오찬 및 평가간담회를 한 후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2박 3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정들었던 마음을 뒤로 하고 서로 연락하자며 헤어지는 탈북지식청년들을 보니 다음에도 이런 기회를 계속 마련하고 그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는 북민실의 마음이 커져갔다.



| 북한인권세미나가 끝나고 |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세미나를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가지게 된 것이 있냐는 질문에 참가자들이 다양한 생각을 내놓았다.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한국분들도 북한인권과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참가자,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어떤 사안의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수한 논의와 깊이 있는 소통이 필요함을 느꼈다는 참가자, 인권활동이 중요하며 통일은 인권개선을 위한 도구일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인권에 대해 깊이 공부하겠다고 응답한 참가자 등 세미나는 참가자들에게 북한인권과 통일에 대해 생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참가자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인권이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또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인권과 통일에 관심을 가지겠는가 라는 태도를 가졌었던 저로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암흑 속에서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또한 많은 탈북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면서 그동안 나는 나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세미나를 마치고 한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참가소감을 전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얻어가는 지식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과 독일의 통일사례, 통일한국에서의 노력 등 탈북청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통일이라는 시간이 찾아왔을 때 제가 북한인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분단의 역사 끝에 찾아 올 통일을 위해 준비하겠다는 참가자의 소감은 우리 북민실의 심금을 울렸고 앞으로로도 계속해서 북한인권을 위한 운동들을 전개해나가야겠다는 도전을 주었다.



금번 세미나는 탈북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현재 가장 살아있는 탈북 1세대 강사들을 통해 희망의 불꽃을 지켰다. 세미나가 끝나고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북한인권세미나를 개최해달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북민실 재단에 희망찬 소리로 와 닿았고 금번 세미나를 발판삼아 앞으로 탈북 인재들을 재구성하고 세미나에 참석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020년 북민실재단과 각 기관에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금 총액 249,685,829원

기업 또는 단체 (65곳)

기아자동차, (주)그루터기, (주)길리, (주)노웨스트마린, ㈜미래기연, (주)세진, (주)신영플러스, (주)현대피팅, NZ한우리교회, 강남일1남전교회, 강남일2,3여전교회, 구미남교회, 국군중앙장로회, 그날까지선교연합코리아, 김부혜독서모임, 김포제일교회, 노원샘물교회, 높은뜻이룸교회, 대연성결교회, 대연중앙8여전교회, 대연중앙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금, 대한예수교장로회진, 물금교회선교부, 법무부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 벨엘교회 유지재단, 부산서부지역 법사랑위원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통광기도연합, 부산항만공사, 브니엘교회, 비앤지1급종합정비, 사단법인코지, 사직동교회, 세광정공, 수정교회, 신영플러스, 신평로교회, 아시아사랑교회, 영광교회, 영진전기기술교육원, 와이케이시틸, 우리들교회, 웨스트힐장로교회, 장대현교회, 장대현학교학부모회, 정동제일교회, 제일문창교회, 조이로지스틱스 박흥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부산여전교회, 지리산청냇골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진주동부교회, 진해동부교회, 창원새순교회, 창원세광교회, 창원여전교회중부시찰, 하나우리봉사단, 하나텍스회계사무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사하구자동차검사소,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남부지사, 한울교회, 현대자동차(주)사상서비스센터, 현대출판인쇄사, 호산나교회

개인 (302명)

강남조, 강동욱, 강문식, 강병철, 강시라, 강연정, 강주리아, 강주희, 강지혜이진일, 고나경, 고석범, 고재봉, 곽광성, 광수현, 구정모, 권국일, 권대겸, 권세황, 권순덕, 김강락, 김경수, 김경숙, 김금수이영미, 김기선, 김기환, 김나을, 김남순, 김덕숙, 김도연, 김명자, 김미경, 김미자, 김미정, 김민균, 김민정, 김민희, 김봉남, 김상우, 김상욱, 김석환, 김선옥, 김성실, 김소현, 김수기, 김수양, 김수정, 김수진, 김숙자, 김숙진, 김순경, 김순덕, 김승실, 김승욱, 김아영, 김영실, 김양숙, 김영림, 김영은, 김영진, 김예지, 김옥금, 김은유, 김용수, 김용인, 김용철, 김유겸, 김윤진, 김율, 김은지, 김은희, 김인숙, 김인희, 김재은, 김정자, 김정주, 김정희, 김종규, 김종기, 김종원, 김주리, 김주영, 김주환, 김지선, 김지영, 김진우, 김차남, 김창수, 김철봉, 김철자, 김철호, 김청규, 김춘길, 김춘자, 김태숙, 김한결, 김현원, 김현주, 김현진, 김형수, 김형정, 김홍기, 김홍연, 김환성, 김희정, 김효주, 김희정, 노은, 노은희, 류윤희, 류태열, 문주연, 문채린, 문희자, 이진국, 박경선배성순, 박경숙, 박경식, 박나연, 박동호, 박미자, 박미희, 박소현, 박순영, 박에스더, 박영순, 박영애, 박영희, 박옥배, 박용문, 박용욱, 박은혜, 박인옥, 박인하, 박정수, 박정순, 박정필, 박찬희, 박창호, 박춘희, 박효은, 방윤정, 배남규, 배종호, 백승기, 백지영, 백태경, 백향희, 변경애, 서순덕, 서정오, 서현주, 선두선, 성민선, 성숙희, 성예준, 소귀순, 손규선, 손근희, 손금희, 손덕화, 손정화, 손혜영, 송민아, 송춘란, 신각경, 신금자, 신상득, 신현숙, 심호승, 안남영, 안병조, 안선영, 양경희, 양선애, 양성숙, 양은수, 양정자, 엄득주, 여상국, 오영미, 우현기, 유은옥, 윤병술, 윤수경, 윤순금, 윤양미, 윤이정, 윤주연, 이경아, 이경옥, 이계하, 이구현, 이귀분, 이길자, 이덕궁, 이덕자, 이봉금, 이새로, 이선애, 이성순, 이세영, 이소라, 이수현, 이숙례, 이소화, 이신애, 이영숙, 이영진, 이영해, 이완, 이요한, 이은숙, 이재필, 이정수, 이정숙, 이정옥, 이정호, 이정화, 이종철, 이종혁, 이주룡, 이지영, 이지훈, 이태선, 이호준, 이화춘, 이한주, 한구미, 임미영, 임미향, 임수정, 임진근, 장승철, 장유리, 장인철, 전경숙김유근, 전미옥, 전유나, 전철용이희숙, 전희경, 정명희, 정미현, 정상근, 정승, 정순철, 정원기, 정윤이, 정임숙, 정지선, 정진보, 정창국, 정태훈, 정향자, 정현숙, 정혜영, 정호선, 제범모, 조광진, 조동혁, 조명호, 조선옥, 조성재, 조윤미, 조한아, 주선영, 주은희, 지영실, 차지명, 채경숙, 채상병, 최경희, 최명실, 최병제, 최순애, 최연수, 최은실, 최은주, 최은희, 최정임, 최정자, 최정환, 최주영, 최현범, 최현수, 최혜경, 하봉미, 하옥순, 하정연, 한갑훈, 한금선, 한수진, 한은애, 허명욱, 허선미, 허우출, 현한나, 홍선희, 홍정미, 홍효실, 황귀영, 황보명숙, 황현미

2021년 1~11월 북민실재단과 각 기관에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금 총액 403,833,195원

기업 또는 단체 (73곳)

(사)통일지향협의회, (주)그루터기, (주)길리, (주)세진, (주)제이글로리, NK MISSIONS, NKPW, NZ한우리교회, 강남일2,3여전교회, 거제교회, 고성제일교회, 구미남교회, 국군중앙교회장로회, 그날까지선교연합코리아, 기적작가 아카데미, 김부해독서모임, 김포제일교회, 높은뜻이룸교회, 다음교회, 대연중앙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금, 대한예수교장로회진, 도서출판 청어람, 독일코리아재단, 류미장유리, 마산복음교회, 물금교회선교부, 미션텍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광역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남구협의회, 부산사랑의열매, 부산온누리교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항만공사, 브니엘교회, 비앤지1급종합정비, 사단법인코지, 사직동교회, 선한장로회, 세광정공, 세움교회, 수영로교회, 수정교회, 신평로교회, 아시아사랑교회, 영광교회, 영진전기기술교육원, 온천제일교회, 와이케이스틸, 우리들교회, 웨스트힐장로교회, 이복오도위원회, 장대현교회, 장대현학교학부모회, 정동제일교회, 정승, 조이로지스틱스 박흥택, 중부산여전교회, 지리산청냇골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진중동부교회, 진해동부교회, 창원새순교회, 창원세광교회, 창원여전교회중부시찰,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산서부지역협의회, 하나우리봉사단, 하나텍스회계사무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사하자동차검사소, 한울교회, 해빛교회, 현대공영(주), 현대출판인쇄사, 호산나교회

개인 (270명)

Chongsuk Kim Morris, 강남조, 강동욱, 강문식, 강병철, 강시라, 강연정, 강재성, 강재호, 강주리아, 강주희, 강지혜이진일, 광광성, 광수현, 광지원, 구정모, 권국일, 권대경, 권세황, 권순덕, 김강락, 김경수, 김경원, 김기선, 김기주, 김기환, 김남순, 김덕숙, 김도연, 김도훈, 김미경, 김미자, 김미정, 김민정, 김민희, 김상욱, 김석환, 김선옥, 김선희, 김성실, 김소현, 김소희, 김수기, 김수정, 김숙자, 김숙진, 김순경, 김순덕, 김승욱, 김아영, 김양숙, 김영림, 김영은, 김영진, 김예은, 김옥금, 김은유, 김용수, 김용인, 김용철, 김유경, 김윤진, 김율, 김은희, 김인숙, 김인희, 김재은, 김정자, 김정주, 김정희, 김종규, 김종기, 김종원, 김주영, 김주환, 김지선, 김지영, 김진우, 김치남, 김철자, 김철호, 김춘길, 김춘자, 김한결, 김현원, 김현주, 김현진, 김형수, 김홍기, 김환성, 김효주, 김희정, 노경아, 노은, 류으뜸, 류태열, 문유화, 문채린, 문희자, 박경선배성순, 박경숙, 박경식, 박동호, 박미자, 박미희, 박선영, 박순영, 박에스더, 박영순, 박영애, 박영희, 박옥배, 박용문, 박용욱, 박은혜, 박인하, 박정수, 박정순, 박찬희, 박창호, 박춘희, 박효은, 방윤정, 배창호, 백승기, 백지영, 백태경, 백향희, 변경애, 서순덕, 서정오, 서현주, 선두선, 성민선, 성숙희, 성예준, 소귀순, 손규선, 손금희, 손덕화, 손혜영, 신각경, 신금자, 신상덕, 신현숙, 심호승, 안난영, 안선영, 양선예, 여덕자, 여상국, 오영미, 우현기, 유은욱, 윤병술, 윤수경, 윤순금, 윤이정, 윤주연, 이권봉, 이경아, 이경옥, 이계하, 이덕국, 이덕자, 이봉금, 이새로, 이선애, 이성순, 이세영, 이소라, 이수현, 이숙례, 이승화, 이신애, 이영숙, 이영혜, 이옥순, 이완, 이요섭이혜수, 이요한, 이은숙, 이재필, 이정수, 이정숙, 이정욱, 이정호, 이정화, 이종철, 이주룡, 이지영, 이지훈, 이태선, 이호준, 이화춘, 임미영, 임미향, 임세환, 임수정, 임진근, 장구스코, 장승철, 전경숙김유곤, 전미옥, 전영이, 전유나, 전철용이희숙, 전희경, 정다은, 정명희, 정미현, 정빛나라, 정원기, 정윤이, 정임숙, 정태훈, 정향자, 정현숙, 정혜영, 정호선, 제범모, 조동혁, 조명호, 조상수, 조선숙, 조승환, 조윤미, 조현아, 조형우, 조희영, 주선영, 주은희, 지영실, 차지영, 채경숙, 채정숙, 최경희, 최명실, 최병제, 최순애, 최연수, 최은실, 최은주, 최은희, 최정임, 최정자, 최주영, 최창혁, 최현범, 최현수, 최혜경, 하경원, 하봉미, 하옥순, 하정연, 한갑훈, 한구미, 한금선, 한수진, 허명욱, 허우출, 홍선희, 홍일섭, 홍정미, 황귀영, 황보명숙, 황은지, 황지영, 황현미

재단법인 북민실


투명한 운영

1 공익법인




세무법상 공익법인 의무 준수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익법인 공시

2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 단체




기부금단체의 의무 준수
기부금영수증 발급

3 철저한 회계운영



모든 산하기관 복식부기 실시
세무전문가 확인, 미국공인회계사 감사

4 정부부처 재정지원



남북하나재단,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프로그램비 운영비 일부지원



—
통일은 함께
성취해야 할 과제

후원신청서

(장대현학교와 장대현지역아동센터 후원금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복민실을 통해 운영됩니다.)

후원자 정보

성 명	
생 년 월 일	
휴대 폰 번호	
이 메 일 주소	
우 편 주 소	
기부금공제	<input type="checkbox"/> 산청 () <input type="checkbox"/> 미산청 (기부금공제 관련 국세청 자동등록을 원하시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자동이체(CMS) 후원

은 행 명	
예 금 주 명	
예금주 법적 생 년 월 일	
계좌번호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0,000 <input type="checkbox"/> 20,000 <input type="checkbox"/> 30,000 <input type="checkbox"/> 50,000 <input type="checkbox"/> 100,000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체일	매월 <input type="checkbox"/> 1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상기 본인은 후원신청을 위해 위 정보를 (재)복민실과 후원관리업체에 제공하는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않음

신청일 20 년 월 일

신청자 _____ (서명필수)

후원안내

복민실 후원계좌

국민은행 567601-01-316035
부산은행 101-2017-6323-00
예금주 (재)북한인권과민중화실천

+ 후원신청서는

팩스) 051-265-3679
이메일) nkhrd@nkhrd.org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후원자의 개인정보는

관리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 문의

전화) 051-261-0199
홈페이지) www.nkhrd.org

장대현학교와 장대현지역아동센터를 통해 통일을 만들어가는 곳 '복민실'

오시는 길

법인사무실

부산시 강서구 신호신단4로 76번길 71(신호동) 경삼빌딩
Tel 051)261-0199 Fax 051)265-3679

장대현학교

부산시 강서구 신호신단4로 76번길 71(신호동) 경삼빌딩
Tel 051)974-0320~1 Fax 051)974-0773

교통편

하단지하철역에서 58-1, 58-2, 520, 마을 9, 9-2, 17, 21 승차
신호초등학교 혹은 삼성자동차남문 정류장 하차



장대현지역아동센터

부산시 사하구 다송로 72번길 43(다대동) 수미빌딩 3층
Tel 051)263-0909 Fax 051)261-3676

교통편

버 스 다대현대아파트정류장 혹은 다대3지구 하차
338, 96, 2, 11, 1000(삼야), 마을 15
지하철 1호선 낮개역 4번출구



복민실은 통일을 꿈꾸는 모든이의 공동체로서 탈북청소년을 통일의 동반자로 양육하고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Dreaming of Unification

Jangdaehyun School
Magazine 2021 / 2022

Vol.5



※본 간행물은 남북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